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착각의 종교 기독교를 말하다

팔공산 동화사 산신의 비애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는 순복음교회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동화사를 방문하셔서, 산신각에서 낙서를 하고 조사전의 다기에 오줌을 싸는 행사를 거행하셨다. 전세계적으로 기독교 목회자의 평소 행실이 그러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일이었다.



개신교 목사가 파랗게 낙서해 놓은 동화사 산신각 산신의 눈.

1816년 9월 영국의 해안 탐사선 알레스트호와 리라호가 충남 서천 마량진에 상륙, 조선인 첩사 조대복에게 영어성경을 전달한 이후로, 선교사인 칼 귀츨라프(Karl Gutzlaff · 1803-1851)가 조선에 기독교 전도를 위해 최초로 들어왔다.

그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한국 기독교는 이제 한국 사회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로 사회각층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들을 배출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특성

순복음 교회 목사 침입

산신 눈에 푸른색 낙서

한국 기독교 폐해 보여줘

에 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미풍양속이 파괴되고, 가족간의 결속이나 선량한 제도가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몇백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인디언들을 말살한 미국식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한국 기독교의 이교도와 이단에 대한 폭력성과 공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드디어 사회학자들은 한국기독교의 양대 특성을 배타성과 호전성으로 규정한다.

출가하고 난 후 작은 누이네 집에 서류를 하나 부탁해서 받으려 간 적이 있었다. 뽕을 누르고 현관에 나타난 조카들은 어릴 적에 얽어 키운 녀석들이었고, 10년만에 만났어도 내가 누구지 알아보는 눈치였다. 그러나 조카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주일학교 때 목사님이 부처님은 악마고 스님들은 악마의 제자들이라고 했기에 문을 못 연다고 했다.

기독교는 화목한 가족을 파괴하는 성향의 종교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스님들이 출가하는 이유는 생사고해에서 해매는 가족들을 구제하려는 첫 번째 목적에서 그 출가의 근거를 둔다.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이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자신의 가족이 단

순히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심장을 지니고 있다.

팔공산 동화사 산신각은 대웅전을 바라보고, 왼쪽에 대웅전보다 몇 자 이상 높은 위치에 모셔져 있다. 안에는 좌우로 신성들의 벽화가 있고, 정면에 폭포수와 호랑이를 등지고, 복숭아와 같은 과일을 바치는 시자와 차를 달이는 다동(茶童)이 소나무를 배경으로 그려져 있다.

붉은 대례복을 입은 산신은 하얀 수염을 거북하게 하고 정면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녀간 이후로 파란 눈을 가지게 되었다. 왜 파란 눈을 그렸을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파란 눈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다수의 아랍인들이 검은 눈동자이기 때문이다.

파란눈은 기독교가 서구로 전파된 후 서구의 안목과 자신들을 닮은 예수를 그리면서 생겨난 색깔이다. 파란 눈은 서양인을 대표하는 눈 색깔이다. 목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가 파란눈을 지니고 있어서 불가의 산신을 파란눈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파란 눈을 그림으로써 이교도인 산신을 기독교화(化)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어리석고 미개한 이교도인 산신을 드디어 교화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파란눈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 그는 예수님을 서양인으로 착각한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착각의 종교처럼 보인다. 외국에서는 더 이상 내지 않는 심일조를 열심히 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면 모든 죄가 탕감되고, 눈이 파란 이들이 주로 천국 입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착각과 꿈속의 종교이다. 부디 깨어나길 빌어 마지 않는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무각사서 인연의 '끝없는 바다' 만나다

비엔날레 전시 11월 11일까지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가 세계적인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단장했다.

바로 '2012광주비엔날레' 작품 전시장으로 선정된 것. 11월 11일까지 열리는 무각사 전시는 만남과 인연을 주제로 관객들을 찾아가간다.

무각사에 설치된 명상적 작품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 독일 출신 세계적 작가 볼프강 라이프는 무각사 문화관 안에 '끝없는 바다'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절에서 재배한 쌀 더미들과 자신이 직접 모은 헤이즐넛 꽃가루를 쌓아 구성된다. 밀랍과 우유, 꽃가루와 쌀은 생명과 재생을 상징한다. 그가 사용하는 단순한 재료와 행위들은 서구의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키기보다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사물들 간의 상호연관성이라는 전체론적인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도시의 번잡함으로부터 격리된 무각사의 고요한 공간에서는 이러한 우주적 관계들이 고동치는 소리를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한국작가 우순욱은 광주 무각사 내에 있는 여덟 개의 작은 명상의 방들을 하나로 이어 구성한 '아주 작은 집-무각사(색의 방, 2012)'를 선보인다. 부분이 전체를 이루고 전체가 곧 부분이라는 불교 철학에 기반한 작업이다. 여덟 개의 방으로 통하는 창문이 스크린이 되어 그 위로 마치 빛이 호흡을 하듯 여덟 가지 다른 색들이 서



무각사가 '2012광주비엔날레' 작품 전시장으로 선정됐다. 11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무각사는 만남과 인연을 주제로 관객들을 찾아가간다. 사진은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좌)과 세계적 작가 볼프강 라이프가 작품을 감상하는 장면.

무각사 등 광주일대가 전시장

만남·인연 주제 禪 작품 선택

세계적 독일 작가 볼프강라이프

꽃가루 쌀 등으로 생명 상징

서히 떠오르고 다시 사라진다. 여덟 가지 색은 일곱 무지개 색과 숫자 0을 의미하는 흰색으로 이루어진다. 창 하나에 하나의 색이 입혀져 각기 다른 빛깔의 여덟 개의 창을 이루고, 방 하나가 커다란 사물이 되어 빛을 머금게 된다. 무수히 피어오르는 빛나는 색들, 숨 쉬는 빛들, 겹겹이 솟아오

르는 시간들, 천천히 떠오르고 사라지는 공백들, 공기처럼 교환하는 빛의 주름들,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환상들, 조금씩 다른 차이들, 그 순간과 여운들이 아름다운 빛과 색으로 나타난다.

이밖에도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시내 전역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본전시, 전시관 외에도 무각사를 비롯 광주극장, 대인시장, 서구문화센터, 광주시립미술관, 중외공원, 용봉생태습지(용봉제)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가 열린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광주의 지역적 맥락과 역사를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과 접목해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이런 작품들은 미술유어로 장소 특정적(Site-specific)이라고 설명된다. 울

광주비엔날레를 광주특정적(Gwangju-specific) 전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광주 정신을 잘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극장에서는 미술가 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그누스 뵈토스의 영상 작품 '스벤손일대기 생중계'가 상영된다. 작가는 작고한 친구 스벤손(S. Svensson)의 삶을 무성영화로 만들고 번사의 내레이션을 더한 광경을 비디오로 담았다.

또한 대인시장에서는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작가 김초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광주에서 발견한 이미지들로 콜라주, 페인팅, 조각, 사운드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collective bodies)'라는, 여러 매체를 사용한 작업을 선보인다. 정혜숙 기자

초월로 향하는 면도날의 행렬

정산 스님 6회 개인전

비운의 명곡으로만 알려졌던 말리의 교향곡이 불교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났다. 정산 스님의 6회 개인전 '구스타프 말리의 몽유도원도'가 9월 24일까지 인사아트센터 1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스타프 말리 교향곡을 해석한 평면 및 설치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말리의 교향곡 9번을 해석한 '구스타프 말리의 몽유도원도'는 세로 2m 40cm에 가로 11m가 넘는 대작이다. 대형 화면을 약 3cm 간격으로 빼곡하게 채운 것은 다름 아닌 면도날 약 4만 여개다. 각각의 면도날은 매니큐어와 인조보석 등 여러 재료들로 치장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연출된 이미지는 안건의 '몽유도원도' 인상을 차용했다. '몽유도원도'가 현실을 지나 동경하던 이상향으로 들어가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여행이라면, 교향곡9번 역시 삶과 죽

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정원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정산 스님은 이번 작품을 위해 주식회사 도루코에서 면도날을 협찬받는 등 총 7만 여개의 면도날을 사용했다. 그렇다만 말리의 '9번 교향곡'을 표현하는데, 하필 왜 면

구스타프 말리의 몽유도원도

면도날 7만개로 표현해 눈길

9월 24일까지 인사아트서

도날이 필요했던 걸까?

"면도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반적 으로 같이 대해 터부시 하는 인간들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들면 죽임의 칼이요, 요리사가 들면 맛있는 칼이요, 의사에겐 생명의 칼이잖아요? 마치 말리의 음악에



정산 스님의 6회 개인전 '구스타프 말리의 몽유도원도'가 9월 24일까지 인사아트센터서 열린다. 사진은 면도날로 설치 작품을 작업중인 정산스님의 모습.

대한 일반적인 편견보다는 어떤 이예겐 죽음의 음률이 장엄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들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면도날은 결코 죽음의 칼이 아니라 초월의 세계로 다가가는 문이라고 말한다. "말리의 9번 교향곡을 해석하는데 면도날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

교적인 면에선 이미 죽음은 또 다른 시작으로 해석하며, 열반은 좋고 나쁨의 경계를 넘어선 초월의 세계로 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성냥갑을 활용한 대형작품도 함께 등장한다. (02)736-102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연꽃과 LED조명과 만남! 수공예 창작 연꽃조명

생화와 흡사한 고무소재의 고급연꽃에 LED조명을 넣었습니다. 주로 법당에 부처님 좌우로 놓여지며, 재가불자님 가정에, 수행 하시는 스님법전에 놓여집니다. 고무재질의 고급 연꽃으로서 생화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연꽃, 연밥, 연잎, 극락조로 잘 조화된 100% 수공예 창작품입니다.

연등과는 달리 연꽃 자체에 LED조명이 켜지므로 신비롭고 영험함을 더해줍니다. 세속이 찌들고 더럽다 하여도 제한물 정갈히 살고픈 불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처염상징 연꽃에 등 밝히시어 부디 성불 하십시오.



주문제작문의 010-2692-4632 / 010-9231-1192

네이버카페 꽃과조명 (http://cafe.naver.com/flowerled)
제휴쇼핑몰 불교TV(bin mall) / 사찰물 종로불교 / 모란불교용품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파고다의 황금 빛 파노라마를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5일 (목,토요일 출발) 특가 899,000 (유류세 별도)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짜익티오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7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스님들 추천 상품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 ▣ 중국 지장도량 (구황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 12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인도성지순례 - 6명이상 출발 가능

- ▣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9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네팔 인도 불교8대성지 완전정복 13일, 대한항공 직항, 월요일 출발가능 / 요금문의
* 인도상품 다양합니다. 문의주세요
- ▣ [실존의 나라]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 189만원. 금-일요일 출발
-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 토요일 출발 /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헤거합장